

지역 매 아리



김제시여성회관 남성요리교실 성료

김제시여성회관(여성가족과장 신미란)에서 지난 28일 오후 6시 여성회관 남성요리교실 수강생 및 김제시민 40여명이 참여하여 일일 남성요리교실을 운영했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정 증가로 남성의 가정내 역할이 증대되고 직장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거나 가족을 위해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남성들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여성회관에 남성 요리교실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여성회관 남성요리교실에 참석하시면 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재료를 이용하여 요리하는 즐거움과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며 남성요리교실에 참석한 시민에게 감사의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도시민 귀농·귀촌 상담 홍보

완주군이 서울에서 예비 귀농귀촌 유치 홍보전을 펼쳤다.

29일 완주군은 최근 서울 대치동 SETEC에서 열린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전국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서울 대치동 SETEC에서 첫 상담홍보전을 시작으로, 7월에는 대전광역시, 9월에는 광주광역시, 이번 서울 SETEC을 마지막으로 대도시를 순회할 마무리했다.

이번 4번째 상담홍보전은 도시민 유치 상담뿐만 아니라, 선배 귀농인들이 전하는 농촌생활의 다양한 노하우가 담긴 상담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정책설명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 많은 도시민이 모여 완주군의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정균 농업축산과장은 "상담홍보전을 통해 많은 도시민의 상담과 귀농귀촌 유치가 힘을 쏟았다"며 "내년 2020년에도 상담홍보전, 박람회, 도시민귀농학교, 팜투어 등 다양한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에너지 위기 극복 '나는 난로다'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로컬에너지센터 일원... 난로 시장·생활기술대회 다채

완주에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 고효율 화목난로를 한자리에 만난다.

29일 완주군은 다음달 1일부터 완주군청 뒤 로컬에너지센터와 복합문화지구 누에 일원에서 전환기술전람회 '2019 나는 난로다'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나는 난로다' 행사에서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안 적정기술의 문화 확산,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아마추어 감각과 적정기술 정신에 입각한 가성비 높은 난로 경연과 난로시장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 전환기술 전람회는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며 자립하는 삶의 기술을 나누는 핸드메이드 워크숍인 생활기술대회를 통해 누구나 따라하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메이커 축제를 선보인다.

워크숍 참여는 사전접수 (<http://bit.ly/35Add6uG>)나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장작을 이용한 야생적인 화덕요리를 위해 화덕과 조리기구를 대여해주는 부스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직접 불을 피우고 요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직접 톱과 망치를 들고 아무런 제한없이 두들기고 자르고 부스고 만드는 얼렁뚱딱 공작소도 운영한다.



29일 완주군은 다음달 1일부터 완주군청 뒤 로컬에너지센터와 복합문화지구 누에 일원에서 전환기술전람회 '2019 나는 난로다' 행사를 연다.

관람객 참여 이벤트도 있다. 성냥,ライター 등을 사용하지 않고 파이어스틱을 사용해 불을 빨리 피우는 대결 '김병만을 이겨라!', 통나무 빨리 자르기의 '툰앤툰 걸을 찾아라!', 지정된 횡수 내에

대못박기의 '내가 목수다!'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난로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난로경매도 준비돼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로컬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

사는 화석연료 절약과 지역에너지 활용으로 지구도 지키고 서민들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리"라며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해서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10월 29일 뇌졸중의 날' 김제시 보건소 캠페인 실시

김제시보건소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이하여 김제 전통시장 및 축협 앞에서 뇌졸중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혈압·혈당측정, 뇌졸중 예방 수칙 등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뇌졸중 예방 책자를 배포했다.

뇌졸중은 뇌에서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발생하는

질병으로 우리나라 단일질환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질병이다.

뇌졸중이 발생하여 한번 손상된 뇌 세포는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애를 얻게 된다. 다른 질병보다 뇌졸중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9대 수칙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며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희 보건소장은 매년 실시하는 '세계 뇌졸중의 날'을 기념해 "뇌졸중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질환으로 뇌졸중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은 물론,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 관리 방법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준배 시장 기업 유치 발로 뛰다

농기계 제조기업 방문 투자유치 협의

박준배 김제시장은 29일 농기계 제조 기업을 방문하여 지평선산업단지의 투자유치를 소개하고 최적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투자유치를 위해 방문한 A기업은 농업 및 임업용 기계 부품 생산 업체로 본사는 인천에 두고 2공장은 익산에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도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중이며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중이다.

특히 산단내에 입주해 있는 국가연구원인 II융합농기계센터의 농기계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기술개발지원 등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업에서는 회사현황을 소개하고 사업장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으로 맞이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시에서는 지속적인 일자리 재난 상황에서 기업 유치가 곧 고용창출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준배시장은 "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기적인 연결 관계인만큼 장기적인 전략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도유망한 기업이 김제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중국 남통시 방문

김제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단장 최기운) 20명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김제시 자매도시인 중국 강소성 남통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김제시 홈스테이 교류단은 중국 강소성 남통시 일박가정에서 1:1 홈스테이를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남통시 제일중학교 견학 및 수업참여 등 중국의 다양한 전통문화와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상해임시정부청사를 견학하여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항일운동 정신을 보고 느끼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홈스테이 교류 대표단장인 최기운 행정지원국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홈스테이를 계기로 양국 학생들이 훌륭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양국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로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방문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과 국제적 능력 배양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지난 7월 18일에는 중국 남통시 청소년 홈스테이 방문단이 김제시를 방문하였다.

김제시는 청소년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체육·경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보건소 치매인지자극 프로그램 성료

김제시 보건소 (소장 김형희)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8일로 치매 및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치매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치매인지자극 프로그램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부터 매주 4회(월, 화, 목, 금요일) 총 41회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효과가 검증된 현실인식 및 인지훈련치료를 비롯하여 △운 동치료 △원예치료 △회상치료 △웃음치료 △정서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요리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두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검사(MMSE-DS), 주관적 기억

감지 평가(SMCG),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SGDS-K)를 실시한 결과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 전 후 인지상태가 유지됨이 보였고, 기억력과 우울 평가에서 각각 2점씩 호전된 결과(그 래프 참고)를 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요구도도 높았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내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신축으로 개선된 환경 속에서 더욱 다채로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치매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인지력을 향상시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